



중동지역 보험시장의 성장둔화 가능성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중동지역 보험시장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수년간 높은 성장을 시현해 왔으나, 2014년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유가하락과 정치·사회 불안 등은 보험산업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들 요인은 보험회사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¹⁾는 저유가와 정치적 불안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이하 “중동지역”)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국제유가는 2014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 초 배럴당 20달러대까지 기록하였으며, 중동지역은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시민운동 이후 정치·사회 불안²⁾이 높은 상황임.
 - 최근(2016. 5. 14) Moody’s는 저유가, 주요 산유국들의 저성장,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Aa3→A1), 바레인(Ba1→Ba2), 오만(A3→Baa1)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킴.³⁾

■ 중동지역은 유가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음.

1) A.M. Best(2015, 5, 2), “Low Oil Prices and Political Instability Provide Testing Times fo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surance Markets”, *Best’s Journal*.
 2) 중동지역은 종교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 이슬람교 내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등 종파 간 분열 문제가 혼재되어 있고, 핵무기 개발 등의 문제로 UN, 미국 등과의 대립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분쟁지역임(한국무역협회 2016).
 3)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신용등급은 유지됐지만,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림.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Ba1부터 투기 등급으로 평가됨. 한편, A.M. Best는 중동지역 주요 국가의 국가위험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구분	알제리	이집트	바레인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터키
Country Risk Tier	CRT-5	CRT-5	CRT-4	CRT-5	CRT-4	CRT-4	CRT-4
· 정치적 리스크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 경제 리스크	High	High	Moderate	High	High	High	Moderate
· 금융시스템 리스크	Very High	Very High	Moderate	Very High	High	High	High

- 중동지역은 고유가로 인한 가치분소득 향상, 시설투자 증가⁴⁾, 산업개발프로젝트 진행, 의무담보 도입 등으로 보험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동지역의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연평균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8.8%와 8.3%로 전 세계 보험산업 성장률을 크게 상회함.⁵⁾
-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국제유가 하락,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불안 등이 중동지역 보험산업 성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임.
 - 중동지역은 저유가로 인한 원유수출 관련 투자 둔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부보가능 리스크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보유보험료 증가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중동지역의 자국 내 손해보험회사는 재물, 건설, 산업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리스크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대부분은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최근 3년간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시장경쟁심화, 출재수수료 감소 등으로 줄어들음.
 - 특히, 저유가로 촉발된 중동지역의 경기침체는 자국 내 주식과 부동산에 편중하여 운영한 보험회사의 투자성과에 악영향을 미침.
 - 한편,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인 등은 단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등은 정치적 불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들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A.M. Best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국제유가는 40달러대로 반등하였으나 정부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한 최저유가 수준(51.8~105달러)⁶⁾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⁷⁾ **kiri**

4) 2000년대 이후 경제호황 속에서 건설경기가 늘어나게 되자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5) 동 기간 동안 전 세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0.6%와 2.0%임. 한편, 2014년 기준 중동지역의 국가별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터키(22%), 아랍에미리트(18%), 사우디아라비아(16%), 이란(15%), 모로코(7%), 이집트(4%), 레바논(3%) 등의 순임(QFC, MENA INSURANCE BAROMETER 2016).
 6) 알제리: \$93, 바레인: \$105, 쿠웨이트: \$51.8, 오만: \$97.5, 카타르: \$57.8, 사우디아라비아: \$95.8, UAE: \$67.5.
 7)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은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석유수출을 통해 발생한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를 복지혜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마해왔음, 그러나 저유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긴축재정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수출입은행 2015).